

터 (고린도전서 3:1-11)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에 있으므로, 사람이 세계 복음화에 답하면 큰 응답 받는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언약이 된다. 이것이 응답의 언약이고 세계 복음화 정복의 언약이다. 어제부터 237 훈련이 시작되었다. 세계 복음화하는 제자를 찾는 훈련이다. 하루나 한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언약이 되어야 한다. 언약은 가만히 생각하다가도 들어올수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을 듣는 중에 들어온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듣고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교훈과 메시지를 듣게 된다. 이미 그리스도 우리 안에 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에 답 나면 큰 인생 살게 된다. 한번 크게 자기 인생을 살기 원하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설기를 바란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저주받은 인간에게 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답은 절대적인 것이다. 누구든지 그 답으로 살아야 하고 다른데 가면 자기 손해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대충 통계를 보면 이 답을 믿는 사람은 한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약 90%는 각자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 중에는 이 답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에게 나타난 저주의 모습은 줄어들지를 않는다. 미국에는 웬일인지 사람이 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게 되어 있어서 이 총을 들고 학교에 가서 이유없이 죽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죄송한 말이지만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면 되지 왜 남을 죽이는지 모를 일이다. 계속 일어난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이런 정신문제들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리고 그 답은 무엇인가가 바로 기본메시지의 서론의 질문이다. 두가지가 있다. 왜 문제가 왔느냐는 것이다. 왜 삶이 힘들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왜 정신에 문제가 오느냐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왔으면 무슨 답이 있을건데, 그 답이 뭐냐가 바로 우리가 가진 질문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이 질문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도 이 질문을 피해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두가지 질문에 전부 다 잡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진짜 한번 더 잡아야 한다. 아는데 안 잡는 사람도 있다. 잡는다고 잡는데 아직 안 들어간 사람도 있다.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것이 충분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통해서 정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대부분 놀려 있다. 자기의 인생에.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인간의 저주에서 해방이라고 말한다. 운명에서 해방이라고 말한다. 이 저주와 운명같은 단어는 상당히 나와 상관없는 단어 같다. 이것을 우리가 가까이 느낄 단어가 뭘까? 그 단어가 바로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문제에서 해방이다. 해방이 아니고 정복이다. 정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증거인 것이다. 역전을 시켜서 증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믿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느냐는 것이다.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게 언약으로 들어오고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 문제 해결은 기도 응답으로 된다. 그러면 내 기도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내 기도가 내 영적인 수준이다. 내 기도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 눈이 열렸느냐는 것이다. 분석을 잘 해 봐야 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여기서 끝낼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넣어 놔다는 것이다.

1. 터

본문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것을 닦아줄 자가 없이 이 터는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터라는 단어를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골라놓

은 것을 말하는 단어이다. 이 터에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터라는 말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영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육신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영적인것만 말하지는 않는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우주의 터도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것의 터라는 것이다. 창조의 터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모든 것의 터로 받아야 한다. 당연히 내 인생의 터로 받고 나의 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터 위에 나의 모든 것을 세워야 한다. 인생은 이 터를 벗어나면 안된다. 벗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기가 손해이다. 서론에서 이야기 한 그런 문제는 해결 못한다. 이 터를 벗어나서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된다. 경제문제도 영적문제이다. 정복을 할 수 있는 경계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하나님이 돈을 지켜줘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내가 정복할수 있지 안 지켜주면 하루 아침에 날아가버린다. 세상 만물이 이 터 위에 지었다. 창조의 터. 그래서 나는 세상 만물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 터는 우리의 언약이다.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 이걸 아주 근본적인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기초인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다. 딱 잡아야 하는데 눈에 보여야 잡는다. 보이는 눈을 만드는 것이 훈련이다. 메시지 듣는 것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눈이 열려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래야 역사 일어나고 정복으로 가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인생을 이 터 위에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에서 나온다. 틀림 없다. 인생의 집을 이 터위에 에 짓고 흔들리지 않고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반드시 문제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날이 오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도 나를 생각해 보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된다는 것을 누구나 고백한다. 어떤 사람은 운명에 잡혀서, 이걸 생각인데, 여기에 잡혀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을 견져야 한다. 마태복음 7:24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였다. 이 터는 반석이다.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집을 이 터위에 지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에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상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 같이 있었던 짐승들도 다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방주가 이 터라는 것이다. 이 터,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터 위에 집을 지을것인가가 문제이다. 7장 24절에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인생을 이 반석위에 세운 자라는 것이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이슈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다 듣고 이것을 행하여 그 집을 이 반석위에 세울것인가는 것이다. 7장 24절에서 나의 말은 좁게 보면 마태복음 5-7장의 산상보훈을 말한다. 크게 말하면 성경 전체의 말이지만 좁게는 산상보훈인데, 이것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 다 행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한다고 하면 놀리게 된다. 나도 그랬다. 이것을 행하라. 5, 6, 7장 읽어보면 과연 되겠는가 싶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버렸다. 왜냐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원리도 모르고 잘 모르겠는 것이다. 복음을 모르면 말씀을 문자적으로밖에 해석 못한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답이 안나온다.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눈 빼고 손 자르고 다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간단하게 대표적인 말씀 몇 개 보면 5장 시작하면 바로 8복이 나온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이다. 천국이 내것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다.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니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부자라서 예수 안 믿기 때문이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나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팔복의 이야기가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

와 있다. 그러면 8복의 결론이 무엇인가? 몸의 행위로 지켜서 8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받고 누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을 모를 때에는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다. 어쩌다 영상같은거 보면 8복 해석한 목사님들 나오는데, 저는 이해가 된다. 복음을 모르면 그 선을 넘어서지를 못한다. 문자와 문장에 걸려 있을 수 밖에 없다. 5장 이후에 계속 보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는 말도 나온다. 남의 것을 욕심내었다면 도둑질 한거라는 것이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을 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 지옥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몸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이고 모두 지옥이다. 그렇다면 모두 지옥이라고 말씀을 쫓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온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영안이 없어 깨닫지 못한다. 문자에 걸려서, 5장의 결론은 48절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손목 자르고 눈 뽑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이다. 이것을 누가 하겠는가? 그런데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당해서 저주 받아 안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 얼마나 아냐면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만큼 아신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시면 어쩌라는 것이다. 복음 모를 때에는 이런 생각도 안 났다.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니가 온전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그리스도로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내게만 답이 있다는 말이다. 수많은 말씀을 하고 기적을 행했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메시지의 정점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고. 이제는 다 했으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다. 니가 할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이다. 그래서 손을 자르고 눈을 뽑고 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나를 그리스도로 받으라. 그러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다. 6장의 결론은 무엇인가? 33절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것이다. 6장은 기도와 구제에 관한 말씀을 주신다. 그 안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들어있다. 마지막에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일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것만 하면. 결론이 뭐냐? 너는 나를 누려라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나라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를 찾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는 그의 나라가 죽어도 안 찾아진다. 그의 의를 구하라 했다. 그의 의가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므로 가장 우리와 관련된 의는 그의 십자가와 보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내가 너의 언약이고 내가 너의 기도이다. 너의 기도제목은 나라는 것이다. 나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의는 죄의 반대이다. 그래서 죄는 저주고 의는 구원이다.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로 하는 기도제목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기도에 잡혀 있냐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능가하게 되면 그 기도 안해도 된다. 해도 그것은 그냥 하는것이지 핵심이 아니다. 힘을 주는, 내 마음이 진짜 들어가는 기도제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7장의 결론은 오늘 말한 반석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내 위에 너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 없다라는 것이다. 이 집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행하는 자가 뭘지 정리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삶 속으로도 옮겨야 한다. 지켜야 한다. 죄도 안 지어야 하고. 그러나 힘이 있어야 죄를 안짓는 것이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죄를 안 짓는다. 즉 5장의 결론은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그리스도로 받으라. 6장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만 있으니 그 비밀은 나를 누리는 것이다. 7장은 내 위에 너의 인생을 지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 없을것이라는 약속이다. 결국 나를 믿어라. 나를 누려라, 나를 언약으로 잡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방법이다. 전에는 생각이 종교적이어서 몸으로 때우려고 했지만 안되니까 좌절할 것이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 뿐이다. 인생을 이 터 위에 세워야 한다. 우리 인생이 이 터를 벗어나면 안된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것의 터이고 근본이다. 방법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말씀을 잡고 언약으로 누리면 그것이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주를 넘어 보좌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터, 그리스도이다.

2. 초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다.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데,이래서 고린도교회에 파당이 생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는데 그것을 따라간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도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완전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쓸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마음에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언약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따라가는가?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씩 질문해봐야 한다. 이것이 혼자 있으면 생각이 잘 안난다.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난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할 때 메시지 듣는 것은 좋은데, 하나 제안하자면 듣다가 말씀이 딱 들어오면 바로 세운 뒤에 적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린다. 적은것과 안 적은 것이 차이가 많이 난다. 각인이 되어야 내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내것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듣고 은혜 받는것도 너무나 귀하다. 그러나 단어 하나라도 들어와서 내것이 되어야 한다. 내것이 된다, 각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작업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결심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만일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다른곳에 가 있게 된다. 거기에 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만일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나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이게 최고의 인생, 가장 귀한 인생이다. 정복한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냥 강단의 소리로 들으면 안된다.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가 인간을 따라가냐, 하나님을 따라가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잡히면 안되고 오히려 살려야한다. 세상을 넘고 인간을 초월해야 한다. 인간에게 잡혀서는 정복 안 된다. 만일 하나님이 내 안에 세계복음화를 주셔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언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영적인 일이라 시간표 필요하고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세상에 휘둘린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서도 따라가면 안된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따라가면 안된다. 분명한 언약이 있으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 언약의 내용은 계속 이야기 한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를 누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세상을 아래로 볼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월하게 된다. 그 때쯤 세계복음화의 답이 오게 되는 것이다. 초월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돌아서서 살리는 것이다. 오히려 공홀히 여기는 맘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되는 날이 되기 바란다. 이것 때문에 237 훈련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야 내게 들어온다. 돌아와서 언약이 되면 내 인생을 내가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주를 넘어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게 된다. 누구나 세상을 정복하고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